

농·어촌 및 도서지역 원격 화상 수업이 영어 학습 동기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예지 (중앙대학교)
김태영 (중앙대학교)**

Lee, Ye-Ji and Tae-Young Kim. 2019. The Effect of Video-conferencing Education on English-Learning Motivation and Attitudes in Rural and Island Area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1, 95-119. This study examines English-learning motivation and attitudes toward video-conferenc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rural and island areas of Jeollanam-do Province. Grade 3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the subjects of our study.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conditions: video-conferencing, face-to-face, and hybrid (i.e., video-conferencing plus face-to-face) groups. To identify learner's motivation, we used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Attitudes included both attitudes toward English learning and attitudes toward foreigners. The results showed that video-conferencing education made students improve their English-learning motivation and attitudes. Except for the ideal L2 self, intrinsic motivation,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foreigners, video-conferencing education did not have a difference compared with face-to-face class. Such results indicate that in general the video-conferencing education is as effective as the conventional face-to-face education and can be used for an alternative learning tool for students lacking the opportunity to study with 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in rural and island areas.

Keywords: video-conferencing,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attitu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quantitative inquiry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고질병처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교육부에서 발행한 ‘영어교육정책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87%가 영어 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체 사교육비 중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김희삼 외 2010). 남미숙(2010)에 의하면 “영어 사교육 기회는 부모 소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며(p. 81),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영어교육 기회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을 밝힙니다.

** 제 1저자: 이예지, 교신저자: 김태영

것은 물론이고, 교육 격차로도 이어진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고, 공교육 부활 및 영어 격차(English divide)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입안해 왔다. 영어와 관련된 여러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08년부터 시행된 원어민 원격 화상 수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른바 다도해라고 불리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크게 환영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서지역과 같은 소규모 지역의 학교는 도시의 대규모 학교보다 원어민 교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사의 수가 부족하기에, 이를 위와 같은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는 전국 도서 지역 분포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도서 지역이 있지만, 그에 따른 학교 및 분교 대비 교사의 인원은 매우 부족하다(문상옥 2013). 2017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전국 원어민 보조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교사가 서울, 경기, 부산, 경남에 편중되어 있다(교육부 2017. 04). 이를 위한 대안으로 원격 화상 학습을 시행함으로써 그간 꾸준하게 제기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개정 교육과정에 원어민 원격 화상 수업이 포함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은 “도서벽지 분교장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영어 사용(노출)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방과 후 원어민 원격 화상 수업을 시행해 왔다(전라남도 교육청 2008. 12). 교육청의 이 같은 발표로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 학생들도 원어민 화상 수업을 통하여 양질의 수업을 받을 기회가 확충되었고, 호남지역의 소규모 학교나 서울 이외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화상 수업 연구 역시 활발히 시행되어 왔다. 다수의 관련 연구는 공통적으로 원격 화상 교육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임을 밝혀냈으며(정민수, 부재울 2011),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능력, 즉 의사소통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손창훈 2008). 이처럼 화상 학습은 학습자에게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유용한 학습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화상 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학습자의 인식이나 만족도 혹은 영어 능력의 향상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현재 화상 수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학술적 관점에서 이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화상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신동로 외 2009; 오영범, 이상수 2010). 그러나 2019년 현재 농어촌 지역과 도서 지역에서 화상 수업을 듣는 학습자의 동기와 태도의 구체적 양상이 어떠한지를 밝힌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영어 학습 동기 연구에서 현재 다수의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이론적 틀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김태영 2013). Dörnyei(2005, 2009)는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를 발전시켜 이상적 제2언어 자아, 필연적 제2언어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었으며, Deci와 Ryan(1985)은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으로 내재화의 정도에 따라 동기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동기적 자아 체계와 자기 결정성 이론을 활용한 제2언어 학습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율성이 높은 동기를 내면화할수록 제2언어 학습 발달에 큰 도움이 되며, 영어 성취도 향상에 좋은 영

향을 미친다고 한다(김명숙 2013, 김태영 2012, 장민경 2013, Kim 2010). 이러한 이유로 영어 화상 학습을 수행하는 학습자의 동기와 태도를 상기한 두 이론 체계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원격 화상 학습의 동기 연구가 부족한 전라남도의 진도군과 완도군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형식의 원어민 활용 화상 수업이 학습자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재 전라남도 진도군과 완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에는 ‘개별 원어민 화상 학습’, ‘면대면 학습’, ‘하이브리드 학습’이 있다. 본 연구는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시행되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원어민 활용 수업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인 영어 학습 동기와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공교육에서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1)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와 자기 결정성 이론의 관점에서 세 가지 수업 모델(원어민 원격 화상학습, 면대면 학습, 두 가지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유형 학습)을 경험한 농어촌과 도서 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 2) 세 가지 수업 모델(원어민 원격 화상학습, 면대면 학습, 두 가지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유형 학습)을 경험한 농어촌과 도서 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어 학습 태도를 살펴보았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

2. 선행 연구

2.1 화상 교육의 효과성

원어민 원격 화상 교육이 학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국내 및 해외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정민수(2011)는 원어민 원격 화상 수업을 수강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이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으며, 학습자의 수업 참여 및 피드백 제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가 개인당 한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원어민과 일대일로 수업하는 경우, 스스로 해야 할 것과 목표를 뚜렷하게 인지하며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능동적인 태도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인다. Suzan(2012)은 원격 교육을 이용한 다문화 교류 교육이 캐나다와 터키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동기를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음을 밝혔다. 그의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에서 원격 화상 수업을 통하여 교과에 대한 흥미가 고양되었다고 답하였다.

교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실 화상 학습’과 달리 ‘개별 원격 화상 학습’은 교사의 피드백을 받는데 훨씬 용이하며 학습 참여도도 높일 수 있다. 교실 화상 학습은 한 대의 대형 모니터로 수업을 하거나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 여러 명이 수업을 받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별로 피드백을 주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학습 참여도가 달라진다. 개별 원격 화상 학습은 이러한 참여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과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격 화상 학습의 효과를 도서 지역에서 검증한 연구 역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임성백(2014)은 전라북도 도서 지역과 전라남도 신안 도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학생이 화상 교육을 통하여 말하기, 읽기, 듣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대체로 화상 수업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수업이 자신들의 영어 사용 기회를 늘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에도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외 관련 연구들(Bullen 1999, Downes 2013, Ronald and Janet 2011)은 원격 교육이 섬이나 지방과 같이 외진 지역에 사는 학습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리적 소외감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상 학습이 영어 학습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라는 소수의 국내 연구만 있을 뿐 영어 학습 동기의 다양한 하위 구인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특히 농어촌과 도서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화상 학습이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신동로 외 2009; 오영범, 이상수 2010)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동기를 두 가지의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2.2 학습 동기

2.2.1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

Dörnyei(2005, 2009)는 Higgins(1987)의 자기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 theory)과 Markus와 Nurius(1986)의 가능한 자아(possible selves)개념을 발전시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라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는 이 모형에서 동기 요인이 이상적 제2언어 자아(ideal L2 self), 필연적 제2언어 자아(ought to L2 self), 제2언어 학습 경험(L2 learning experience)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를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습득하고 난 후에 자신의 이상적인 미래를 그려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훗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개인의 소망에 의하여 형성된 자아가 이상적 제2언어 자아에 해당된다. 이러한 자아상은 학습자가 스스로 설정하였으므로 학습 동기 향상에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와 달리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자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의무나 책임감과 같은 외부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 이 자아는 스스로 학습하기보

다 부모님이나 주변인의 요구 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실패를 방지하고자 학습하는 특징이 있다. 제2언어 학습 경험은 주변 환경,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전에 제2언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이 학습자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Dörnyei(2005, 2009)에 의해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가 제안된 후, 이 모형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김태영(2012)은 39명의 초·중등 학습자의 학습 동기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성적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초·중학생들의 경우 이상적 자아가 많이 나타났으며, 중등학습자들의 경우에는 필연적 제2언어 자아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러나 중등학습자들에게서도 필연적 자아만큼은 아니지만, 이상적 제2언어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들 역시 발견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부모의 적절한 조언과 가정환경 그리고 이상적 자아가 형성되는 경우에 학습자의 영어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임현정(2016)은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580명을 대상으로 제2언어 자아와 영어 능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 제2언어 학습 경험 모두 초등학생의 영어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이상적 자아는 영어 능력에 긍정적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필연적 자아, 제2언어 자아 학습 경험 순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중 이상적 자아와 필연적 자아 모두 영어 학습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어 학습자 본인에게 내재화된 이상적 자아의 경우 학습자 스스로가 뚜렷한 학습 목표를 형성하게 하여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도 농어촌과 도서 지역 초등학생의 동기는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2.2. 자기 결정성 이론: 내적 동기, 외적 동기

Deci와 Ryan(1985)은 학습 동기에 대하여 새로운 체계인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학습 동기는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된다. 내적 동기란 행동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그 행동 자체가 주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의미하며, 외적 동기는 행동의 원인이 외적 요소, 예를 들면, 처벌, 보상, 칭찬 등과 같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이후에 동기를 내면화 정도와 자율성에 따라서 무동기(amotivation),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세분화하였다(Ryan and Deci 2000a).

Ryan과 Deci(2000a)에 의하면 외적 동기는 다시 네 가지 하위 구인으로 분류된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이란 행동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으로, 누군가의 요구나 보상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학습자는 능동적이라기보다

수동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둘째, 내사 조절(introjected regulation)이란 자신의 자아나 자존감을 지속 또는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내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자존감을 얻으려 행동하기 때문에 완전히 내적으로 통제된 조절로 보기 어렵다. 셋째,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은 자신의 가치나 자아실현과 같은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절은 외적 동기 중 내면화된 조절로 보일 수 있지만, 외적 동기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아를 위해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닌,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를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이다(p. 62). 넷째, 동일시 조절(identified regulation)은 외적 동기의 하위 요인 중 가장 내면화된 형태로 높은 자율성 지니고 있다. 이 조절은 학습자가 학습 내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므로 내적 동기라고 할 수 없다. Ryan과 Deci(2000a)는 무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갈수록 자기 결정성이 높은 동기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자기 결정성 이론이 소개된 이후 우리나라는 2000년대 전후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며, 이후 2011년까지 10년 동안 총 122편의 논문이 발행되었다(김성수, 윤미선 2012).

김성수와 윤미선(2012)은 105편의 선행 논문을 중심으로 자기 결정성 이론의 동기와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학습자에게 내적 동기보다 동일시 조절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습자의 조절 양상이 성취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명숙(2013) 또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영어 조기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서 학습 동기와 영어 능숙도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자율성이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수록 영어 능력을 고취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장민경(2013) 역시 자기 결정성 이론의 요인들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는 중학교 2학년의 학습자들 대부분이 내적 동기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동기가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자기 결정성 이론의 동기 구인이 학습과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어촌과 도서 지역 학습자들에게서 자기 결정성 이론의 하위 구인 중 어떠한 동기가 우세하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본 논문의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인 것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동기 유형을 자기 결정성 이론의 외적 동기의 하위 네 구인으로 세분화 하지 않고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만으로 양분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2.3 학습 동기와 태도의 관련성

Gardner(1985)는 학습자가 제2언어 학습에 형성하는 동기와 태도가 제2언어 습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는 캐나다에서 제2언어로 프랑스어를 습득하는 학생들이 통합적 지향성을 갖고,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와 그 사회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언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제2언어 학습 동기가 해당 언어 능숙도를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언어 학습을 지속시켜주는 흥미(interest)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Gardner 1985, p. 83).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미옥(2008)은 영어 학습 태도와 학업 성취도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습 태도가 긍정적인 집단일수록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성취도가 높았음을 규명하였다. 배태일(2012) 역시 영어에 대하여 학습자가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자신감을 지닐 때 영어 성취도에도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Kim(2010)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 동기와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영어 학습에 긍정적 태도를 지닌 학습자들은 TEPS 시험의 하위 항목 점수와 전체 총점에서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다고 한다. 상기한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학습 태도는 성취도와 긍정적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동기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의 학자들은 동기와 태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김태영, 김윤경 2015, Gardner 1959, 1985, Kim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 학습 동기, 영어 성취도와 관련되어 있는 영어 학습 태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화상 학습을 듣는 학습자가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고찰하고,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 화자에게 학습자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예비 조사와 본 조사로 나뉘어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설문지 작성 시 각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본 연구의 참여자인 10세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예비 조사 대상을 지역 아동센터로 한정된 것은 본 연구 대상의 학생들과 교육 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본 조사 지역에 유선상으로 연구 허가를 받을 당시, 담당 교사로부터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정보를 습득하였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해당 지역 내에 학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예비 조사 대상은 본 연구 참여자인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학생들과 유사하게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로 한정하였다. 예비 조사는 서울 관악구 지역 아동센터 7곳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센터별로 예비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전 인원은 아니며, 일부만 참여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예비 조사 대상이 본 조사 대상과 다르게 시행한 이유는 본 조사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소수인 관계로 예비 실험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예비 조사 대상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원어민과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며,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에

사교육 여부를 묻는 문항은 없으나 아동센터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질문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학생용 설문 문항을 정교화하고 문항 수를 조절하였다. 본 조사의 연구 대상은 전라남도 진도군과 완도군의 읍, 면에 소재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총 14교의 221명이다. 진도군에서는 여학생 57명, 남학생 63명으로 총 12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완도군은 여학생 45명, 남학생 56명으로 총 10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기간은 약 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화상 학습 시행 전후에 걸쳐 2회 시행되었다. 1차 본 조사는 17년 12월에 시작했으며 3월까지 발송한 설문지를 전량 수거하였다. 12월부터 2월은 겨울 방학과 신학기가 시작되었으므로 화상 학습을 받기 전 상태를 파악하기에 적절했다. 2차 본 조사는 4월부터 8월 사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학습자들이 화상 수업을 받고 난 후이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우편으로 결과를 취합하였으므로 2차 본조사의 설문지 수합까지 시간이 소요되었다. 8월 전량 회수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3.2. 본 연구 집단: 원어민 화상 학습, 면대면 학습, 하이브리드 학습

본 연구는 학습법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개별형 원어민 화상 집단’이다. 이 집단은 방과 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컴퓨터, 웹 카메라, 헤드셋,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닷넷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수업 인원은 도서 지역과 소규모 학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약 5명에서 8명 정도이다. 만일 학습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두 개의 학교가 연계하여 수업을 시행하였다. 인원이 적어 학생당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한 명과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형 화상 학습과 차별성이 있으며, 피드백을 받기에 용이하다. 화상 수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원어민 교사마다 다르며 교사에 따라서 파워포인트 자료나 기타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업의 내용은 주로 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수업은 주 1회 진행되었으며 주로 방과 후에 실시되었다. 수업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였다. 원어민 화상 교사는 1년 동안 한 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학기마다 변경된다. 현재 전라남도 화상 수업에는 원어민 교사 약 50명, 원어민 협력 교사 약 50명으로 총 100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면대면 학습은 기존에 익숙한 방식으로 정규 수업 시간에 원어민 교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정규 초등영어 교과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수업 시수는 주 1회로 구성되었으며, 수업 시간은 약 40분 정도였다.

셋째, 하이브리드 학습은 화상 학습과 면대면 학습이 결합한 형태로 화상 학습 집단의 진행 방식 및 구성 인원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화상 학습과 달리, 이들 중 몇몇 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TaLK 장학생¹ 또는 순회교사를 요청하여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에 원어민

교사와 수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집단의 경우 주 2회 정도의 수업을 하였으며, 수업 시간은 1회당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었다.

세 학습 집단 모두 학습에 노출되는 시간은 방학을 제외하면 약 10개월 정도로 추정된다. 화상 학습 시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를 구하려 했으나, 원어민 교사의 개인 관련 내용도 수업 자료에 포함된 관계로 개인 정보 보호로 인해 습득이 불가능하였다.

3.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수업이 농어촌과 도서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연구 도구로써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에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중 한 가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상단에는 남, 여 표기를 넣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학습 동기 요인 12문항, 학습 태도 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대상 연령이 초등학교 3학년임을 고려하여 이들의 인지적 부담을 낮추고자 각 구인의 하위 요인을 요인별 3문항으로 제한하였다.

설문지의 학습 동기 요인은 Deci와 Ryan(1985), Ryan과 Deci(2000a, 2000b)의 자기 결정성 이론과 Dörnyei(2005)의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학습 동기 요인은 4가지로 이상적 제2언어 자아, 필연적 제2언어 자아, 내적 동기, 외적 동기이다. 학습 동기 요인은 전술하였듯 각 하위 요인마다 3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문항 구성을 위하여 이상적 제2언어 자아, 필연적 제2언어 자아에 해당하는 6문항은 김태영과 김윤경(2015), 이연실과 안경자(2013)의 연구 설문지를 참고했으며,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해당하는 6문항은 이미옥(2008)의 연구 설문지를 참고했다.

설문지의 학습 태도 요인은 Gardner(1985)의 사회교육 모형을 참고하였다. 학습 태도 요인은 2가지로 첫째,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둘째, 외국어 사용자에게 대한 긍정적 태도이다. 학습 태도 요인은 하위 요인마다 3문항씩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문항 구성을 위하여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외국어 사용자에게 대한 긍정적 태도에 해당하는 6문항은 김태영과 김윤경(2015)의 연구 설문지를 참고했다.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위 연구 설문지를 기반으로 연구 대상에 맞춰 질문을 재구성 및 변경하여 작성하였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설문 분석을 통한 양적 연구로서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¹ TaLK 프로그램은 Teach and Learn in Korea의 약어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미문화권 학생들이 한국의 시골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TaLK 웹사이트 2019).

다.

첫째, 변수를 구성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원어민 보조교사 학습법의 초등학생 학습 동기와 학습 태도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분산분석(ANOVA)을 했을 때 사전과 사후 모두 하이브리드 학습의 평균점수가 높아 사전 점수가 동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각 집단별 효과를 균등히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평균 값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공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원어민 보조교사 각 학습법의 초등학생 학습 동기와 학습 태도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3.0을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각 원어민 보조교사 학습법의 학습 동기 검증

진도군과 완도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학습법이 학습 동기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1을 살펴보면 화상 학습은 영어 학습 동기 전체에서 사전 검사($M = 3.31$)보다 사후 검사($M = 3.45$)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나 영어 학습 동기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309, p < .05$). 면대면 학습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에서 사전 검사($M = 2.62$)보다 사후 검사($M = 3.06$) 평가가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나 이상적 제2언어 자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 = -4.082, p < .01$), 학습 동기 전체에서도 사전 검사($M = 3.41$)보다 사후 검사($M = 3.54$) 평가가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나 학습 동기의 전반적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407, p < .05$). 두 가지 학습법과 달리 하이브리드 학습은 학습 동기 하위 구인 중 어떠한 요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 결과를 통해 화상 학습은 학습 동기 전체 요인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상 학습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수의 선행 연구(신동로 외 2009, 오영범, 이상수 2010)와 일치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화상 학습이 원어민과 직접 의사소통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의적 요소인 자신감과 흥미 증진에도 영향을 주어 학습자의 영어 학습 동기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1. 농어촌과 도서 지역 학습법별 학습 동기 사전 사후 검사의 비교

| 항목 | 학습법 | 측정시기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p |
|-------------|----------|------|-----|------|------|--------|------|
| 이상적 제2언어 자아 | 화상학습 | 사전 | 42 | 2.63 | 0.17 | -1.954 | .058 |
| | | 사후 | 42 | 2.91 | 0.17 | | |
| | 면대면 학습 | 사전 | 135 | 2.62 | 0.92 | -4.082 | .000 |
| | | 사후 | 135 | 3.06 | 0.90 | | |
| | 하이브리드 학습 | 사전 | 44 | 3.21 | 1.00 | -1.250 | .218 |
| | | 사후 | 44 | 3.41 | 1.08 | | |
| 필연적 제2언어 자아 | 화상학습 | 사전 | 42 | 1.96 | 0.87 | .053 | .958 |
| | | 사후 | 42 | 1.94 | 0.74 | | |
| | 면대면 학습 | 사전 | 135 | 1.87 | 0.71 | .289 | .773 |
| | | 사후 | 135 | 1.84 | 0.84 | | |
| | 하이브리드 학습 | 사전 | 44 | 1.81 | 0.86 | .920 | .362 |
| | | 사후 | 44 | 1.68 | 0.78 | | |
| 내적 동기 | 화상학습 | 사전 | 42 | 2.96 | 1.12 | -0.973 | .336 |
| | | 사후 | 42 | 3.10 | 1.16 | | |
| | 면대면 학습 | 사전 | 135 | 3.14 | 1.11 | -1.142 | .255 |
| | | 사후 | 135 | 3.26 | 0.97 | | |
| | 하이브리드 학습 | 사전 | 44 | 3.59 | 1.04 | -1.094 | .280 |
| | | 사후 | 44 | 3.74 | 0.84 | | |
| 외적 동기 | 화상학습 | 사전 | 42 | 2.42 | 0.94 | 1.309 | .198 |
| | | 사후 | 42 | 2.22 | 0.76 | | |
| | 면대면 학습 | 사전 | 135 | 2.26 | 0.93 | .203 | .839 |
| | | 사후 | 135 | 2.24 | 0.83 | | |
| | 하이브리드 학습 | 사전 | 44 | 2.25 | 0.87 | .274 | .786 |
| | | 사후 | 44 | 2.20 | 0.81 | | |
| 학습 동기 전체 | 화상학습 | 사전 | 42 | 3.31 | 0.48 | -2.309 | .026 |
| | | 사후 | 42 | 3.45 | 0.50 | | |
| | 면대면 학습 | 사전 | 135 | 3.41 | 0.50 | -2.407 | 0.17 |
| | | 사후 | 135 | 3.54 | 0.50 | | |
| | 하이브리드 학습 | 사전 | 44 | 3.69 | 0.58 | -1.325 | .192 |
| | | 사후 | 44 | 3.80 | 0.48 | | |

본 연구에서 학습 동기 전체 요인이 상승했으므로, 화상 학습은 초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영어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화상 학습에서 학습 동기 전체 요인만 향상되었고,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내적 동기에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내적 동기는 학습자의 영어 능력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김명숙 2013, 이연실 2013, 임현정 2016). 따라서 화상 학습자의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를 제외하면 학습 동기 전체 요인의 향상에 화상 학습과 면대면 학습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손창훈(2008)의 연구와 상응하는 결과이다. 손창훈(2008)은 화상 수업과 면대면 학습을 활용한 말하기 학습에서 두 학습법이 말하기 능력 향상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환언하면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는 화상 학습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실제로 배치하기 어려운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에 면대면 학습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보완 교수법이라는 점이다.

4.2 각 원어민 보조교사 학습법의 학습 태도 검증

진도군과 완도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각 학습법이 학습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2를 살펴보면 화상 학습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서 사전 검사($M = 2.80$)보다 사후 검사($M = 3.3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660, p < .01$). 또한 학습 태도 전체에서 사전 검사($M = 2.78$)보다 사후 검사($M = 3.20$)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나 학습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299, p < .05$). 화상 학습의 결과와 유사하게 면대면 학습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서 사전 검사($M = 2.94$)보다 사후 검사($M = 3.58$)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나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 = -5.787, p < .01$), 학습 태도 전체에서 사전 검사($M = 3.03$)보다 사후 검사($M = 3.38$)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나 학습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t = -4.406, p < .01$). 반면, 위의 두 가지 학습법과 달리 하이브리드 학습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학습 태도 전반 어느 항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 연구 결과를 통해 화상 학습과 면대면 학습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학습 태도 전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 수치상 면대면 학습이 화상 학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두 유형의 학습 방식 모두 학습 태도 향상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화상 학습은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이끌어, 긍정적인 학습 태도를 유발한다고 한다(문상욱 2013, 손창훈 2008, 정민수 2011, 정민수, 부재울 2011). 이들은 공통적으로 화상 학습이 학습 태도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자신감을 향상시켜 영어 말하기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목표 언어를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Gardner 1985), 높은 학습 성취를 이루게 해준다(이미옥 2008).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화상 학습은 농어촌과 도서 지역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와 학습 태도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면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농어촌과 도서 지역 학습법별 학습 태도 사전 사후 검사의 비교

| 항목 | 학습법 | 측정시기 | N | 평균 | 표준편차 | t | p |
|------------------------|----------|------|-----|------|------|--------|------|
|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 화상학습 | 사전 | 42 | 2.80 | 1.24 | -3.660 | .001 |
| | | 사후 | 42 | 3.31 | 1.28 | | |
| | 면대면 학습 | 사전 | 135 | 2.94 | 1.21 | -5.787 | .000 |
| | | 사후 | 135 | 3.58 | 1.15 | | |
| | 하이브리드 학습 | 사전 | 44 | 3.72 | 1.08 | -0.894 | .376 |
| | | 사후 | 44 | 3.88 | 0.85 | | |
| 외국어 사용자에게 대한 긍정적 태도 | 화상학습 | 사전 | 42 | 2.76 | 1.12 | -1.730 | .091 |
| | | 사후 | 42 | 3.08 | 1.25 | | |
| | 면대면 학습 | 사전 | 135 | 3.12 | 1.06 | -0.564 | .574 |
| | | 사후 | 135 | 3.18 | 1.08 | | |
| | 하이브리드 학습 | 사전 | 44 | 3.50 | 1.16 | 1.431 | .160 |
| | | 사후 | 44 | 3.28 | 0.86 | | |
| 학습 태도 전체 | 화상학습 | 사전 | 42 | 2.78 | 1.08 | -3.299 | .002 |
| | | 사후 | 42 | 3.20 | 1.17 | | |
| | 면대면 학습 | 사전 | 135 | 3.03 | 1.00 | -4.046 | .000 |
| | | 사후 | 135 | 3.38 | 0.96 | | |
| | 하이브리드 학습 | 사전 | 44 | 3.61 | 0.99 | 0.255 | .800 |
| | | 사후 | 44 | 3.58 | 0.71 | |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습 태도에 관한 본 연구에서 세 가지 학습법은 공통적으로 외국어 사용자에게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태영과 김윤경(2015)에 의하면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면대면 학습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사용자에게 대한 태도에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태영과 김윤경(2015)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이 선행 연구가 서울에서 시행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농어촌과 도서지역에서 시행되어 비교적 원어민을 접할 기회가 적다는 환경적 차이로 인해 원어민에 대한 태도 자체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3. 세 가지 원어민 보조교사 학습법 간 학습 동기 비교

초등학생의 학습 동기에 대한 각 원어민 보조교사 학습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법

별(즉, 화상 학습, 면대면 학습, 하이브리드 학습) 학습 동기의 사전, 사후 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학습법별 초등학생 학습 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 요인 | 학습법 | 사전 평가 | | 사후 평가 | |
|----------------|----------|----------|-----------|----------|-----------|
| | | <i>M</i> | <i>SD</i> | <i>M</i> | <i>SD</i> |
| 이상적 제2언어 자아 | 화상 학습 | 2.63 | 1.07 | 2.92 | 1.07 |
| | 면대면 학습 | 2.63 | 1.06 | 3.06 | 1.05 |
| | 하이브리드 학습 | 3.22 | 1.00 | 3.41 | 1.08 |
| 필연적 제2언어 자아 | 화상학습 | 1.95 | 0.87 | 1.94 | 0.74 |
| | 면대면 학습 | 1.87 | 0.71 | 1.84 | 0.84 |
| | 하이브리드 학습 | 1.81 | 0.86 | 1.68 | 0.78 |
| 내적 동기 | 화상학습 | 2.96 | 1.12 | 3.10 | 1.16 |
| | 면대면 학습 | 3.14 | 1.11 | 3.26 | 0.97 |
| | 하이브리드 학습 | 3.59 | 1.04 | 3.74 | 0.84 |
| 외적 동기 | 화상학습 | 2.42 | 0.94 | 2.22 | 0.76 |
| | 면대면 학습 | 2.26 | 0.93 | 2.24 | 0.83 |
| | 하이브리드 학습 | 2.25 | 0.87 | 2.20 | 0.81 |
| 학습 동기 전체 | 화상학습 | 3.31 | 0.48 | 3.45 | 0.50 |
| | 면대면 학습 | 3.41 | 0.50 | 3.54 | 0.50 |
| | 하이브리드 학습 | 3.69 | 0.58 | 3.80 | 0.48 |

원어민 보조교사 학습법의 초등학생 학습 동기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평가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 평가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원어민 보조교사 학습법이 초등학생 학습 동기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사전 평가의 영향력을 제거한 학습 동기 전체($F = 2.697, p = .070$)와 이상적 제2언어 자아($F = .685, p = .505$), 필연적 제2언어 자아($F = .994, p = .372$), 내적 동기($F = 2.413, p = .092$), 외적 동기($F = .062, p = .940$)의 사후 평가에서 학습법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원어민 원격 화상학습, 면대면 학습, 하이브리드 학습은 초등학생 학습 동기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표 4. 초등학생 학습 동기의 공분산분석

| 요인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p |
|----------------|-----------|----------|-----|--------|--------|-------|
| 이상적 제2언어 자아 | 공변인(사전평가) | 45.013 | 1 | 45.013 | 48.900 | <.001 |
| | 주효과(집단) | 1.262 | 2 | 0.631 | 0.685 | .505 |
| | 오차 | 199.750 | 217 | 0.921 | | |
| | 전체 | 2374.972 | 221 | | | |
| 필연적 제2언어 자아 | 공변인(사전평가) | 7.560 | 1 | 7.560 | 12.166 | <.001 |
| | 주효과(집단) | 1.236 | 2 | 0.618 | 0.994 | .372 |
| | 오차 | 134.844 | 217 | 0.621 | | |
| | 전체 | 884.361 | 221 | | | |
| 내적 동기 | 공변인(사전평가) | 44.756 | 1 | 44.756 | 58.395 | <.001 |
| | 주효과(집단) | 3.700 | 2 | 1.850 | 2.413 | .092 |
| | 오차 | 166.315 | 217 | 0.766 | | |
| | 전체 | 2663.778 | 221 | | | |
| 외적 동기 | 공변인(사전평가) | 6.167 | 1 | 6.167 | 9.665 | .002 |
| | 주효과(집단) | 0.079 | 2 | 0.039 | 0.062 | .940 |
| | 오차 | 138.444 | 217 | 0.638 | | |
| | 전체 | 1241.444 | 221 | | | |
| 학습 동기 전체 | 공변인(사전평가) | 5.588 | 1 | 5.588 | 25.034 | <.001 |
| | 주효과(집단) | 1.204 | 2 | 0.602 | 2.697 | .070 |
| | 오차 | 48.435 | 217 | 0.223 | | |
| | 전체 | 2886.318 | 221 | | | |

4.4. 세 가지 원어민 보조교사 학습법간 학습 태도 비교

초등학생의 학습 태도에 대한 각 원어민 보조교사 학습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법 별(즉, 화상 학습, 면대면 학습, 하이브리드 학습) 학습 태도의 사전, 사후 평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원어민 보조교사 학습법의 초등학생 학습 태도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평가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 평가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원어민 보조교사 학습법이 초등학생 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사전 평가의 영향력을 제거한 학습 태도 전체($F = .243, p = .785$)와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F = .702, p = .497$), 외국어 사용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F = .116, p = .890$)의 사후 평가에서 학습법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원어민 원격 화상학습, 면대면 학습, 하이브리드 학습은 초등학생 학습 태도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유사한 효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표 5. 학습법별 초등학생 학습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 요인 | 학습법 | 사전 평가 | | 사후 평가 | |
|---------------------|----------|-------|------|-------|------|
| | | M | SD | M | SD |
|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 화상학습 | 2.80 | 1.24 | 3.31 | 1.28 |
| | 면대면 학습 | 2.94 | 1.21 | 3.58 | 1.15 |
| | 하이브리드 학습 | 3.72 | 1.08 | 3.88 | 0.85 |
| 외국어 사용자에게 대한 긍정적 태도 | 화상학습 | 2.76 | 1.12 | 3.08 | 1.25 |
| | 면대면 학습 | 3.12 | 1.06 | 3.18 | 1.08 |
| | 하이브리드 학습 | 3.51 | 1.16 | 3.28 | 0.86 |
| 학습 태도 전체 | 화상학습 | 2.78 | 1.08 | 3.20 | 1.17 |
| | 면대면 학습 | 3.03 | 1.00 | 3.38 | 0.96 |
| | 하이브리드 학습 | 3.61 | 0.99 | 3.58 | 0.71 |

표 6. 초등학생 학습 태도의 공분산분석

| 요인 | 변량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p |
|---------------------|-----------|----------|-----|--------|--------|------|
|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 공변인(사전평가) | 59.422 | 1 | 59.422 | 59.878 | .001 |
| | 주효과(집단) | 1.391 | 2 | 0.695 | 0.701 | .497 |
| | 오차 | 215.344 | 217 | 0.992 | | |
| | 전체 | 3127.222 | 221 | | | |
| 외국어 사용자에게 대한 긍정적 태도 | 공변인(사전평가) | 44.149 | 1 | 44.149 | 46.299 | .001 |
| | 주효과(집단) | 0.221 | 2 | 0.111 | 0.116 | .890 |
| | 오차 | 206.923 | 217 | 0.954 | | |
| | 전체 | 2482.917 | 221 | | | |
| 학습 태도 전체 | 공변인(사전평가) | 58.341 | 1 | 58.341 | 88.305 | .001 |
| | 주효과(집단) | 0.321 | 2 | 0.160 | 0.243 | .785 |
| | 오차 | 143.366 | 217 | 0.661 | | |
| | 전체 | 2737.112 | 221 | | | |

5. 논의

5.1. 화상 학습이 영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각 원어민 보조교사 학습법(원격 화상 학습, 면대면 학습, 하이브리드 학습)이 초등학교 3학년 학습자의 영어 학습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 및 사후 분석을 하였다. 이후, 세 가지 학습을 공분산분석으로 비교하여 학습 동기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과 도서 지역 학생들은 화상 학습과

면대면 학습을 통해 영어 학습 동기가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분석 결과를 통하여 화상 학습이 학습자의 영어 학습 동기 증진에 기여하며,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 효과적인 학습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화상 영어 학습이 학습 동기를 유발할 것이라는 선행 연구(정민수, 부재울 2011)들과 상응한다.

원격 화상 학습, 면대면 학습, 하이브리드 학습을 공분산분석으로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이상적 제2언어 자아, 필연적 제2언어 자아, 내적 동기, 외적 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마주하고 진행되는 면대면 학습이 학습자에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 학습법이 모두 비슷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들(손창훈 2008, 임병빈 외 2009)과 상응하는 결과이다. 임병빈 외(2009)는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CALL) 기반 영어 수업이 기존 전통적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보다 학습 동기와 태도 증진에 효과적임을 밝혔으며, 손창훈(2008) 또한 화상 교육을 적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에서 화상 교육과 면대면 교육이 흥미와 정의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상 학습이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기존의 면대면 학습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보조 학습 방법임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어촌과 도서 지역은 원어민 교사와 내국인 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교육부 2017, 문상옥 2013, 이은숙 2013), 화상 수업은 원어민 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 영어 교사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잠정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문상옥과 김봉규(2015)는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원어민 화상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이 대체로 수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영어 능력도 역시 높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신안군 A면(面)에 거주하는 학습자들은 사설 교육 기관이 없어 별도의 수업을 받을 수 없지만, 화상 수업을 통해 원어민과 만날 수 있어 말하기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문상옥, 김봉규 2015)를 통하여 화상 학습은 면대면 학습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전술하였듯 화상 학습 결과 학습 동기 전체 구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으나, 이상적 제2언어 자아와 내적 동기는 상승하지 않았다. Dörnyei(2005, 2009)에 의하면 이상적 제2언어 자아는 목표 언어를 구사하는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마음속에 투영해 보는 것으로, 제2언어 학습 동기를 구성하는 핵심적 구인이다.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와 관련된 연구(김태영 2012)에 따르면 제2언어 동기적 자아체계와 영어 능력은 관계가 있으며, 특히 이상적 제2언어 자아는 학업 성취 및 학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 결정성 이론에 관한 연구 또한 자율성이 높은 동기를 내재화할수록 영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김명숙 2013).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이들 동기가 향상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법을 적용하는 현장개선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2. 화상 학습이 영어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각 원어민 보조교사 학습법(원격 화상 학습, 면대면 학습, 하이브리드 학습)이 초등학교 3학년 학습자의 학습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과 사후 분석하였다. 이후, 세 가지 학습을 공분산분석으로 비교하여 학습 태도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화상 학습과 면대면 학습은 공통적으로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학습 태도 전체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화상 학습이 학습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는 선행 연구(문상옥 2013, 손창훈 2008, 정민수, 부재울 2011)들과 상응하는 결과이다. Gardner(1985)와 Kim(2010), 이미옥(2008)에 따르면 언어 학습에서 긍정적인 학습 태도는 목표 언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하도록 견인한다. 이효용과 오준일(2000) 역시 영어 학습 성취도에 중요한 요인은 외국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라고 한다. 문인실과 오마리아(2012)는 전라북도의 초·중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원격 화상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하였고, 그 결과, 원격 화상 수업이 학습자의 관심을 증대시켜 수업에 더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임지혜와 강문구(2013) 역시 웹 기반 학습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 자신감 및 학습에 적극적인 태도를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화상 학습이 학습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 다만, 두 가지 학습 모두 외국어 사용자에게 대한 긍정적 태도가 상승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화상 수업을 실시하는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 그리고 교실 현장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반면 두 학습과 달리 하이브리드 학습은 동기와 태도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학습이 학습자의 동기와 태도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 연구(송재신 외 2009)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뚜렷한 학습 동기와 태도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역시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격 화상 학습, 면대면 학습, 하이브리드 학습을 공분산분석으로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외국어 사용자에게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학습 태도 전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한 집단 간 비교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했듯이 화상 수업과 면대면 수업을 비교한 연구들(임병빈 외 2009, 손창훈 2008)과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원격 화상 수업과 면대면 수업이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화상 수업의 경우 전통적인 수업보다 학습 동기와 태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원격 화상 학습은 면대면 학습이 어려운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에 추가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보완적 교수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6. 제언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원격 화상 학습은 농어촌, 특히, 도서 지역에 면대면 학습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수단임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원격 화상 학습은 학습자의 동기와 태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화상 학습은 원어민과의 수업이 원활하지 못한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수 방식으로 향후 적용을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어권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원격 화상 학습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2018년 전라남도 담양군의 A 초등학교는 호주의 초등학교와 교류 학습 일명, AKC(Australian Korea Connection)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원격 교류 화상 학습(AKC)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의 흥미와 긍정적인 학습 태도, 문화 인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은숙 2018). 송윤숙과 이경화(2015) 역시 원격 교류 학습(AKC)이 학습자의 흥미와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경기도 B 초등학교와 호주 초등학교 간에 진행되는 원격 교류 학습(AKC)의 경우 초등학생들이 타문화에 대해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자국문화와 타국 문화의 차이점을 수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원격 화상 학습과 교류 학습을 접목하여 타국 학생들과 학습 및 소통하는 것은 학습자의 인식과 동기를 증진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Suzan 2012). 따라서 추후에는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는 환경에서 영어권 지역민들과의 원격 화상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7. 2017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현황. <http://www.moe.go.kr/main.do?s=moe>에서 검색했음
- 김명숙(Kim, M-S.). 2013. 자기 결정성이론에 근거한 초등학교 저학년용 영어 학습 동기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nglish learning motivation inventory for low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Self Determination Theory). 《교육과정평가연구》(*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16-1, 85-210.
- 김성수·윤미선(Kim, S. and M. Yoon). 2012. 자기 결정성이론의 연구 동향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Trend and meta-analysis for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its rel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교육학연구》(*Kore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4, 77-106.

- 김태영(Kim, T-Y.). 2012. 한국 초·중등학생들의 영어 학습동기 및 제 2언어 자아 분석 - 정성적 인터뷰 접근법(An analysis of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their L2 selves: A qualitative interview approach).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2-1, 67-99.
- 김태영(Kim, T-Y.). 2013. 영어 학습 동기 연구의 최근 경향(*Recent Trends in English Learning Motivation Research*). 서울: 한국문화사.
- 김태영·김윤경(Kim, T-Y. and Y-K. Kim). 2015.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태도에 관한 연구: 예비 영어교사의 학습자 측면을 중심으로(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attitudes of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Focusing on pre-service English teachers as learners).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2, 247-268.
- 김희삼·우석진·전지현·진경애·김유경(Kim, H. S., S. J. Woo, J. H. Jeon, K. A. Jin and Y. K. Kim). 2010. 영어교육정책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http://www.prism.go.kr/영어교육정책_성과_분석_및_발전_방안_연구에서_검색했음
- 남미숙(Nam, M.). 2010. 초등학교 영어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결정요인: 학부모 인식을 중심으로(Parents' perceptions of private English education and determinants of expenditures for private English education).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5-2, 80-107.
- 문상욱(Moon, S.). 2013. 도서 지역 원격 화상 영어 교육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The Influence of Videoconferencing English Language Education on the Self-efficacy of Primary School Students in Island Areas*). 석사학위 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상욱·김봉규(Moon, S-O. and B-G. Kim). 2015. 전라남도 도서 지역 원격화상 영어교육의 초등학생 영어능력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The use of video-conferencing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on language competence and attitudes of primary school students in Jeonnam island area). 《영어영문학 21》(*The 21st Century Association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8-2, 301-324.
- 문인실·오마리아(Moon, I-S. and M. Oh). 2012. 초·중등교사와 학생의 교실수업형 원어민 화상영어교육에 대한 인식(Prim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perceptions of classroom-based video-conferencing English teaching). 《초등영어교육》(*Primary English Education*) 18-3, 123-155.
- 배태일(Pae, T-l.). 2015. 한국 고등학생들의 수준별 영어 성취 모형 연구(Examining English achievement model by proficiency level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 《인문연구》(*Institute of Humanities*) 75, 249-282.
- 손창훈(Son, C.). 2008. 원격 화상교육이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s of Video-conferenc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glish Speaking Ability and Affective Domains*).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윤숙·이경화(Song, Y. S. and K-H. Lee). 2015. 원격화상협력학습이 한국, 호주 초등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The effects of AKC[Australia-Korea Connection] as distance collaborative learning focused on fostering creativ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and Australia). 《*송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Global Creative Leader*) 5-1, 85-103.
- 신동로·정민수·이송희(Sin, D. R., M. Jung and S. Lee). 2009. 초등 원어민 화상수업의 학습자 인식과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Factors of video-conference classes by native speaking teacher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learning satisfaction). 《*교육학연구*》(*Kore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7-4, 119-143.
- 오영범·이상수(Oh, Y-B. and S-S. Lee). 2010. 원어민을 활용한 초등학교 영어화상원격 교육 사례 연구(A case study on video-conferencing using an English native speaker). 《*초등교육연구*》(*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2, 21-46.
- 이미옥(Lee, M.). 2008. 영어 학습 태도, 동기, 불안감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Influence of English Learning Attitudes, Motivation, and Anxiety on Academic Achievement*). 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연실(Lee, Y.). 2013.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 학업 성취도: 제2언어 자아, 국제적인 자세, 가족의 지지의 효과(*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Effects of L2 Selves, International Posture and Family Encouragement*).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연실·안경자(Lee, Y. and K. Ahn). 2013. 한국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 학업 성취도(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effects of L2 selves, international posture, and family encouragement). 《*현대영어교육*》(*Modern English Education*) 14-1, 127-152.
- 이은숙(Lee, E.). 2018. 화상 수업을 접목한 초등영어수업이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Investiga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fective Domains in English Classroom with Video-conferencing*).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재신·정성무·이재무·김자미·차현진(Song, J-S., S. S. M. Jung, J. M. Lee, J. Kim

- and H. Cha). 2009. 온라인 콘텐츠 및 화상회의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한 영어 능력 향상 효과 분석(Analysis of English ability improvement effect through a hybrid model using online contents and video conferencing).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2-3, 31-40.
- 이효웅·오준일(Lee, H. W. and J. I. Oh). 2000. 영어 학습 태도와 능력간의 상관 관계(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proficiency in learning English). 《영어교육》(*English Teaching*) 55-4, 389-410.
- 임병빈·박지민·강문구(Im, B-B., J. Park and M-K. Kang). 2009. CALL 기반 영어수업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영어학습 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The effect of CALL o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and English proficiency). 《현대영어교육》(*Modern English Education*). 10-1, 224-250.
- 임성백(Im, S.). 2014. 우리나라 도서 지역 화상영어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조사 연구 : 호남 도서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Percep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of English Video Conferencing in the Islands of Korea*). 석사학위 논문.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지혜·강문구(Im, J-H. and M-K. Kang). 2013. 농촌 소규모 중학교 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태도, 동기 상실 요인 분석과 개선방안(Small-sized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rural community in learning English). 《언어학연구》(*Studies in Linguistics*) 29, 253-277.
- 임현정(Im, H.). 2016. 제 2언어 동기적 자아체계 및 자아효능감이 초등학생의 영어능력에 미치는 영향(*Influence of L2 Motivational Self System and Self-efficac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석사학위 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민경(Jang, M.). 2013. 영어 학습 동기 및 초인지 학습전략과 학습주도성과의 관계 연구(*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glish Learning Motivation, Metacognitive Strateg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라남도 교육청(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2008. 월드와이드웹: http://www.jne.go.kr/upload_data/Synap/BBS_0000135/20081218_135339_091884200.htm?cpath =에서 검색했음
- 정민수(Jung, M.). 2011. 원어민화상수업 유형과 인지양식이 영어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The Effects of Video-conference Classes by Native Speaking Teachers and Cognitive Style on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정민수·부재율(Jung, M. S. and J. Y. Boo). 2011. 원어화상 수업 유형과 학습자 인지양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The effects of video-conference classes by native speaking teachers and cognitive style on self-efficacy). 《디지털융복합연구》(*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9-14, 291-303.
- Bullen, M. 1999. What's the difference: A review of contemporary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distanc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14(1), 109-112.
- Deci, E. L. and R. M. Ryan.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 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örnyei, Z. 2005. *The Psychology of the Language Learner: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örnyei, Z. 2009.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In Z. Dörnyei and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10-38.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 Dörnyei, Z. and E. Ushioda. 2011. *Teaching and Researching Motivation* (2nd ed.). New York: Routledge.
- Downes, N. 2013.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xperienced by parent supervisors in primary school distance education. *Australian and International Journal of Rural Education* 23(2), 31-41.
-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Arnold.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Kim, T.-Y. 2010. Socio-political influences on EFL motivation and attitudes: Comparative survey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1(2), 211-222.
- Markus, H. and P. Nurius.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9), 954-969.
- Ronald M. and M. Janet. 2011. Remote from what? perspectives of distance learning students in remote rural areas of Scotland.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ance Learning* 12(4), 1-16.
- Ryan, R. M. and E. L. Deci. 2000a.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54-67.
- Ryan, R. M. and E. L. Deci. 2000b.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Suzan, D. E. 2012. Multi-cultural interaction through video conferencing in primary schools.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13(3), 70-86.

Teach and Learn in Korea. 2019. TaLK 프로그램 소개. http://www.talk.go.kr/talk/talk_new/content/content.jsp?menuId=020201 에서 검색했음

예시 언어(Examples in): 영어(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한국어(Korean), 영어(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초등(Primary)

이예지(Lee, Ye-Ji)

대학원생(Graduate Student)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English Ed. Major, Chungang Univ.)

Tel: 02-820-5391

E-mail: xzio_oizx@naver.com

김태영(Kim, Tae-Young)

교수(Professor),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Dept. of English Education, Chungang Univ.)

Tel: 02-820-5392

E-mail: tykim@cau.ac.kr

접수 일자(Received): 2019년 1월 18일

수정 일자(Revised): 2019년 3월 10일

게재 확정 일자(Accepted): 2019년 3월 19일

부록

영어 학습동기와 태도 설문 문항

| 영역 | 질문 문항 |
|--------------------------|---|
| 이상적 제2언어 자아 | 1. 나는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로 외국인과 영어로 말하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
| | 3. 나는 내가 가진 직업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한다. |
| | 9. 나는 외국 여행을 가서 영어로 말하는 내 모습을 생각한다. |
| 필연적 제2언어 자아 | 2. 내가 영어를 잘하면 친구들이 나를 멋지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한다. |
| | 4. 나는 친구가 열심히 영어 공부하기 때문에 나도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다. |
| 내적 동기 | 10. 내가 영어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으면 가족이나 선생님께서 실망하시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한다. |
| | 5. 나는 영어에 관심이 있고 영어를 배우는 것이 좋다. |
| | 7. 영어 공부를 하면 무언가를 얻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 |
| 외적 동기 | 11. 더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한다. |
| | 6. 영어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운다. |
| | 8. 나는 가족이나 선생님께 칭찬 받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한다. |
|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 12. 나는 시험에서 영어 점수를 잘 받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다. |
| | 13. 나는 영어 수업 시간이 기다려진다. |
| | 15. 나는 영어 수업이 재미있고 즐겁다. |
| 외국어 사용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 | 17. 나는 영어 수업을 더 듣고 싶다. |
| | 14. 나는 영어를 쓰는 외국인을 만나 어울려 놀고 싶다. |
| | 16. 나는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 |
| | 18. 나는 영어를 쓰는 외국인을 만나면 말을 걸어보고 싶다. |